



투자기업과 마을의 동반성장, 특별한 상생을 현실로



1 제주신화월드에서 운영중인 제주런드리카페 웨스트힐라운지 2 제주런드리 세탁실 3 제주런드리 유니폼세탁실 4 안덕면 녹차분재로에 위치한 에스지 아큐먼

서광마을기업 SG아큐먼 이야기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에 위치한 (주)에스지 아큐먼(SG ACUMEN·옛 서광마을기업). 서광마을 주민들이 100%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이 기업이 유독 주목받는 것은 마을에 들어선 외국계 투자기업과 지역마을과의 동반성장에서 출발했다는 데 있다.

에스지 아큐먼의 탄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다. 서광 동리와 서리 목장조합이 조합 땅 일부를 신화역사공원 조성지로 매각했는데, 이는 사업이 추진되면 마을주민 고용에서부터 소득증대 등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적잖이 작용했다.

▶마을 주민 380여명이 주주=에스지 아큐먼은 2015년 8월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 개발 운영사인 흥광 컨설팅그룹의 현지법인 램정제주개발(주)과 JDC, 서광서리·동리 마을회와 공동목장조합이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6년 임시법인을 설립한 후 조합원 설명회와 주민 대상 증자를 거쳐 32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2017년 4월 서광마을기업이 창립했다. 두 마을회와 공동목장조합 4개 단체와 마을주민과 목장조합원 382명 등 주주 100%가 지역주민들로 참여, 마을기업을 통한 마을의 변화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좋은 관계 설정을 통한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집적케 한다. 마을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이권을 일부 특정인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출자액도 제한했을 정도다.

▶하우스키팅에서 미화·조경·세탁서비스까지 = 에스지 아큐먼은 제주신화월드 호텔과 리조트 등 객실관리를 아우르는 하우스키팅, 미화, 보안, 시설관리, 주차 등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조경, 식자재 공급까지 토털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총 직원이 250명으로 특급호텔 등 관리객실이 2100여실에 이른다. 매출은 설립 첫해인 2017년 50억원에서 2018년 112억,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또 신화월드 안에서 매장을 임차해 런드리 카페 웨스트힐라운지를, 워터파크 입구에 제주산 과일주스 전문점인 네이처 오브 아일랜드도 운영중이다.

자회사로 서귀포시 토광공업단지에 위치한 호텔·리조트 전문 세탁전문기업(주)제주런드리도 꾸리고 있다. 에스지 아큐먼의 출자금 15억원에 개인주주의 출자금이 더해져 설립된 제주런드리는 최신 자동형 세탁설비로 국내 최고의 세탁서비스 품질을 모토로 내걸

통해 취업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무료세탁 서비스는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기별로 운영하는 따복날(따뜻한 복지상담의 날)과 연계, 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해 안덕면사무소로 모으면 제주런드리에서 무료 세탁해주고 있다.

앞으로 기업 경영이 안정제도에 접어들면 마을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교육·복지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과제=제주신화월드의 영업성적에 따라 에스지 아큐먼도 영향

서광마을기업 SG아큐먼, 지역주민이 100% 주주 참여 상생협약 신화월드 기반 하우스키팅·미화·세탁서비스 리조트 방문객 감소 영향에 안정적 기업운영은 과제로

고 제주신화월드와 세탁서비스계약을 통해 호텔·콘도미니엄의 유니폼과 린넨류의 세탁을 맡고 있다. 또 신화월드 외에 신라스테이, 해비치호텔 등 숙박업체와 골프장 등으로 영업망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연면적 2500㎡ 규모의 제주런드리는 70여명의 직원 중 장애인 19명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작년 매출 12억원에 이어 올해는 26억원이 예상되는데 내년쯤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와 함께 커가는 꿈=에스지 아큐먼은 정에 룸메이드 사전양성 프로그램인 하우스키팅 아카데미와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서비스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업에서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를 받아 매출 등 성장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제주신화월드는 주요고객으로 예상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며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신화월드와 에스지 아큐먼이 체결하는 서비스 계약단가도 하락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만큼의 매출액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근 에스지 아큐먼 대표는 "인건비는 갈수록 상승하는데 반해 계약단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다"며 "제주신화월드가 마을과의 상생협약에 기반해 에스지 아큐먼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인터뷰 / 이정근 에스지 아큐먼 대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최대 고민 상생협약 따라 동반자로 인식을”

“제주신화월드를 기반으로 출발한 에스지 아큐먼이 투자기업과 마을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신화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던 일부 젊은층이 마을로 되돌아온 것도 작은 변화의 하나”라는 에스지 아큐먼의 이정근 대표.

“지금은 제주신화월드가 에스지 아큐먼과 제주런드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사이자 동반자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앞날을 생각하면 현재에 안주할 수 없고, 길 길이 멀다”는 이 대표의 말에선 3년째로 접어드는 마을기업 CEO의 고민이 묻어난다.

당장 마주한 문제는 도내의 아웃소싱 업체들이 제주시장에 전략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주신화월드가 진행하는 여러 일차에서 낮은 가격을 써내며 불거진 계약단가 하락이다.

“우리는 상생협약에 기반해 신화월드와 계약시 최저가입찰이 아닌 우선협상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램정축과 다소의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램정축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 그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신화월드 이용객 등 현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니 조금씩 배려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에스지 아큐먼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화월드 외의 외부영업 활동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제주 전역으로 영업 반경을 확장하고, 제주여건에 맞는 신사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함께하는 한공인! 희망찬 미래!!”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2020년도 신년하례회 및 제58차 정기총회



이임회장 김 동완 (20회)

희망찬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일만구천여 동문 및 가족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2020년도 신년하례회, 제1차 이사회, 제58차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0년 1월 11일(토) / 장소: 퍼시픽호텔 2층

○1부: 이사회 → 17:00 | ○2부: 정기총회 → 17:30 | ○3부: 회장 이·취임식 → 18:00

연락처 총동창회사무처 ☎ 712-1205 **참가비** ₩10,000
사무처장 고경립(25회)



취임회장 박 영부 (21회)

자랑스런 한공인

회기	성명	공적 사항
15	홍국남	대통령표창
16	장태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17	이창선	한국문인 수필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24	양완국	영남중학교 교장
24	윤민	구좌농협조합장
26	박진우	경찰공제회이사장
27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국장
28	전정배	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회장
30	유병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회장
41	고두철	건축사
42	강승지	건축사
재학생	강준협	2019대한민국인재상

역대회장

· 제1~2대:故양문정(1회)	· 제3~4대:故홍창수(2회)
· 제5대:故홍관옥(3회)	· 제6~7대:故이영준(4회)
· 제8~9대:故박인기(4회)	· 제10대:故김성욱(2회)
· 제11대:故고춘봉(1회)	· 제12~14대:故김창도(4회)
· 제15~16대:故강정호(3회)	· 제17대:故안태의(5회)
· 제18~20대: 양우철(4회)	· 제21대: 김중근(6회)
· 제22대 진성택(9회)	· 제23대 김강우(10회)
· 제24대 홍은열(11회)	· 제25대故장창도(12회)
· 제26대 양팔진(12회)	· 제27대 현진수(16회)
· 제28대 고승암(18회)	· 제29대 김상희(19회)

기 회 장

1회 양태관	2회 채희식	3회 양원일	4회 조승욱	5회 양태선	6회 홍택진
7회 강충남	8회 변봉수	9회 장기만	10회 문철진	11회 이형준	12회 문경표
13회 양기철	14회 홍성수	15회 홍택호	16회 채희삼	17회 유수찬	18회 이성철
19회 문공필	20회 박명호	21회 김택보	22회 홍성량	23회 고영호	24회 김치옥
25회 현동수	26회 고윤권	27회 신창도	28회 김종길	29회 조홍근	30회 고창호
31회 한승후	32회 고무성	33회 홍상기	34회 김용식	35회 진영식	36회 변영진
37회 김도신	38회 김방성	39회 문영환	40회 오 훈	41회 문희만	42회 고병석
43회 정우철	44회 김충현	45회 김진연	46회 김충현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이임회장 김 동완 · 취임회장 박 영부

技術報恩